

낙동강 국토 탐사

홍○봉(○○고등학교)

1. 참가 학생

가. 동아리명 : 두 바퀴 탐사대

나. 동아리 소개 : 우리 동아리는 2023년 국토부 국토연구원에서 공모한 국토교육 동아리로 학교장과 교사 1명, 1학년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을 종주하며 국토 이해와 융합교육을 실천하는 동아리입니다.

2. 필요성 및 목적

가) 동아리 운영의 필요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여 낙동강 국토 탐방(안동-부산 자전거 종주)을 통해 낙동강 주변의 도시 형성, 기반 산업 탐구, 인근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조사, 낙동강 주변의 동·식생물 관찰을 통해 애향심을 기르고 우리 국토의 이해와 가치를 도모하는 활동이 되도록 운영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낙동강 종주 도보여행(Road School)을 계획하고 있다. 안동댐에서 부산 을숙도 낙동강문화관까지 390km를 2년에 걸쳐 매월 하루씩 구간별로 걸으면서 낙동강 주변을 공부하려고 한다. 도보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낙동강을 끼고 형성된 역사, 문화, 사회, 환경 등을 길 위에서 공부하여 ‘길 위에서 길을 찾는’ Road School을 만드는 것도 큰 과제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지리적 특징, 강변도로의 상태와 안정성, 도시와 산업, 역사와 문화, 생태 등 다양한 부분을 미리 탐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동아리 「두 바퀴 탐사대」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낙동강을 종주하며 우리 동아리 회원들의 문화 생태적 안목과 회복탄력성을 성장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달구벌고등학교의 도보여행(Road School) 프로젝트의 기초를 다지고, 나아가 우리 동아리의 탐사 결과물을 일반화해 다른 학교나 청소년들의 Road School(국토여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나) 동아리 운영의 목적

○ 회복탄력성 신장

회복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말한다. 현대인들은 소통 능력, 감정조절력, 충동억제력, 소명 의식 등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힘든 난관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것이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은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핵심이다.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면 내가 겪은 경험에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무의식중에 해주는 ‘기억하는 자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자전거 타기, 악기 연습처럼 몸(뇌)에 익히도록 해야 한다. 성공하는 경험을 여러 번 몸으로 익히게 해야 한다.

우리 동아리 「두 바퀴 탐사대」는 ‘낙동강 종주 자전거 탐사’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회원들의 회복탄력성을 성장시키고자 한다.

○ 국토 이해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사회, 지리, 경제, 환경 등을 배운다. 그러나 이는 머릿속에 주입된 단편적인 지식일 뿐,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강 주변에 왜 도시가 형성되는지, 산업단지가 왜 공항과 항만 주변에 있는지, 사과의 주산지가 왜 북상하는지, 낙동강 주변에 도래하던 흑두루미는 왜 일본 이즈미로 갔는지 등 지리와 산업과 환경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 동아리 「두 바퀴 탐사대」는 우리가 태어난 고장인 낙동강을 자전거로 여행하며 강 주변에 형성된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도시의 산업과 문화를 탐구하며 환경 생태를 배우고자 한다. 강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을 현장에서 느끼고, 우리가 빌려 쓰고 후손에게 고이 물려줘야 할 우리의 국토를 어떻게 아껴 써야할지를 체험으로 배우고 성찰하고자 한다. 책 속에서만 만났던 지식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으로 내면화하고, 우리의 경험을 다양한 자료로 만들어 교우들과 후배들의 Road School의 길라잡이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

○ 자존감 회복을 통한 애향심

학교 교육에서는 단편적이고 분절된 과업이나 학습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끼를 발산하거나 융합적인 사고와 다양한 역량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동아리 활동은 ‘탐사 전, 실제 탐사, 탐사 후’라는 일련의 연계된 과정이 종합적인 학습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4박 5일간의 현장 탐사는 학생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온몸으로 체험한 낙동강 주변의 역사, 사회, 지리, 경제, 환경 등의 배움과 성찰이 향토와 국토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며 성장하도록 하겠다.

3. 동아리 활동 설계 및 운영

차시	일자	활동 내용 및 평가	비고 / 연계 교과
1	6월 12일	첫 모임 및 동아리 구성원 소개, 동아리 운영 방안 공유	교내(도서관) / 국어 -합리적 의사 결정 토의하기
2	6월 14일	사전 조사 영역 및 내용에 관한 협의 및 역할 분담	교내(도서관)
3	6월 15일	낙동강 종주 및 탐사를 위한 체력 훈련 지도	교내(기숙사 체력 단련 실) 체육 -기초 체력 신장 및 운동생리학
4	6월 18일	학부모 대상 동아리 운영 설명 및 학생 참가 동 의를 위한 전화 상담	지도교사(전화통화)

5	6월 21일	사전 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공유 및 지도	교내(도서관) 사회과 -한국지리 관련 경상권 및 낙동강 유역에 관한 조사 와 공부
6	6월 22일	낙동강 종주 및 탐사를 위한 체력 훈련 지도	교내(기숙사 체력 단련 실) 체육 -기초 체력 신장 및 운동생리학
7	6월 28일	-사전 조사 내용에 관한 공유 및 스터디 -낙동강 종주를 위한 숙소 예약	교내(도서관) 교과 융합 -국어, 지리, 물리(시간, 거리, 속력, 일몰 및 일 출 등)
8	7월 07일	야외 자전거 훈련(기말고사 마지막 일)	학교 인근 둘레길 교과 융합
9	7월 10일	사전 조사 및 현장 조사 내용 목록 작성	교내(도서관) 국어 - 토의하기
10	7월 13일	낙동강 종주를 위한 준비물 예약 사항 등 점검 -개인 준비물 및 일정	교내(도서관)
11	7월 17일	체력 훈련 상태 점검 및 준비 사항 점검	교내(운동장) 체육
12	7월 24일	탐사 1일차 ●활동 내용 * 경북 안동시외버스터미널 ~ 경북 상주시 경천섬 주 차장, 72km 주행 * 공부할 장소 및 내용 : 안동시 쓰레기 매립장-환경 교육, 화천서원, 부용대, 하회마을, 독립운동 가 추산 정훈모선생, 경천대, 상주 자전거 박물관 등	역사 및 환경 교육 경상북도 안동 -자전거 이동
13	7월 25일	탐사 2일차 ●활동 내용 * 경북 상주시 경천섬 ~ 경북 칠곡군 왜관읍, 80km 주행 * 공부할 장소 및 내용 : 해평면 배후습지와 모래톱 -환경교육, 구미 산업공단, 왜관의 역사, 호국의 다리, 왜관지구 전적 기념관	지구과학, 한국지리, 환 경 교육 경상북도 상주-칠곡 -자전거 이동
14	7월 26일	탐사 3일차 ●활동 내용 * 경북 칠곡군 왜관읍 ~ 적포교(경남 합천군 청덕면),	지구과학, 한국지리, 환 경 교육

		88km 주행 * 공부할 장소 및 내용 : 가실성당, 강정보 디아크, 사문진 나루터, 달성습지(낙동강-금호강 합수지점)와 흑두루미 도래지-환경교육, 도동서원	경상북도 칠곡-경상남도 합천군 -자전거 이동
15	7월 27일	탐사 4일차 ●활동 내용 * 적포교(경남 합천군 청덕면)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82km 주행 * 공부할 장소 및 내용 : 창녕함안보, 삼랑진	역사 및 환경 교육 경상남도 밀양시 -자전거 이동
16	7월 28일	탐사 5일차 ●활동 내용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부산 을숙도 문화회관, 50km 주행 * 공부할 장소 및 내용 : 가야진사, 화명생태공원, 하구둑, 을숙도 생태, 삼각주	지구과학, 한국지리, 환경 교육 부산 -자전거 이동
17	8월 04일	학생 개별 활동 소감문 및 활동 보고서 제출	교사 메일로 제출 국어 - 보고서 쓰기, 수필 쓰기
18	8월 10일	조사 자료 정리 및 동아리 보고서 기획 회의	교내(도서관) 국어 - 보고서 쓰기
19	8월 21일	보고서 작성 중간 보고회, 활동 영상 제작 기획 회의	교내(도서관) 국어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표현
20	8월 28일	활동 영상 제작 및 회의	교내(컴퓨터실) 교과 융합 국어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표현 정보 - 미디어 제작하기
21	9월 01일	교내 동아리 활동 발표회 실시	교내(강당) 국어 - 발표하기
22	9월 04일	보고서 작성 점검 회의	교내(컴퓨터실)
23	9월 11일	국토연구원 보고서 점검 및 제출 마감	교내(도서관)

4. 동아리 활동 자료1)

여행은 항상 두려움과 설렘을 동반한다. 낯선 곳으로의 자전거 여행은 더욱 그러하다. 국토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토 탐구 중고등학생 동아리 공모」에 ‘낙동강 종주 자전거 여행’을 주제로 응모하여 당선된 이후로 여행을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기대감보다 걱정이 앞섰다. 20년 가까이 자전거 여행을 해 온 경험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여름과 한겨울 자전거 여행은 체력과 날씨의 이중고와 싸워야 한다. 자전거 타기가 일상화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5일 정도의 자전거 여행은 큰 부담 없이 즐겁게 다녀올 터이지만 자전거 여행이 초행인 학생들을 인솔하여 가는 여행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고생 끝에 맞이하는 성취감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에 아이들의 성장을 생각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여행을 계획한 7월 24일까지 두 달 정도가 남았으니 잘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낙동강 종주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날씨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체력적인 부분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준비를 시작하며 홍0봉 선생님이 학생들과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자전거 여행 일정을 설명하고 준비할 내용을 공유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첫 회의를 소집하는 와중에 회원 중의 유일한 3학년인 민준이가 포기를 선언해버렸다. 여행에 동참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공모에 당선되어 여행이 확정되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다. 사실 나와 홍 선생님은 동아리 공모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학교 운영비를 사용해서라도 낙동강 종주를 추진할 생각으로 아이들 자전거와 장비를 구입하는 등 준비를 해 왔다. 급히 자전거 여행에 동참할 학생을 물색했더니 1학년의 김성우가 함께 하겠다고 했다. 구성원 다섯 명 모두가 1학년이 됐다.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앞으로 매년 ‘국토 종주 자전거 여행’을 정례화하기에는 경험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래 남아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회의를 통해 홍 선생님은 자전거 여행을 위해서 체력 단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듣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름 체력에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과거 학생들이나 젊은 선생님들과 자전거 여행을 해보면 대부분 지구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봐왔기에 다시 한번 자전거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날부터 카카오톡에 「낙동강 자전거 종주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여행 정보와 준비사항을 공유하며 매일 자전거 연습하는 사진도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여행 경로상에 있는 공부 거리를 나눠서 조사도 하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두세 명의 아이들이 체력단련실에서 헬스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찍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렸다. 그러나 아쉽게도 연습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매일 땀을 흘릴 정도로 연습해야 체력단련이 되는데..... 아쉽지만 지켜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아이들은 대체로 의지가 약한 학생들이 많고 성취 경험이 적어서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안동에서 부산까지 낙동강을 완주하여 성취감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나도 자전거 연습 장면을 찍어 올려서 아이들을 자극했고, 홍 선생님은 아이들 연습 시간에 직접 참관

1) 글) 달구벌고등학교장 변태석

하며 한 시간 이상 안장 위에 머무르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특히 동규는 도무지 자전거 연습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걱정이 되어 개별 면담을 하며 연습을 독려했지만, 대답만 잘할 뿐 실제 연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걱정되는 만큼 동규를 완주시키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낙동강 완주는 동규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위안이 되는 것은 형준이가 틈나는 대로 자전거 연습 사진을 올렸고 뒤이어 성우, 산, 종인이가 연습 결과를 알리기 시작했다.



자전거 수리 공구와 각종 준비물 ▶

비가 오는 가운데 첫날 자전거 여행이 시작되고.....

드디어 출발이다. 8시 30분에 학교에서 출발하기로 했지만, 8시 10분쯤에 모두 모였다.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려 걱정이 되었다. 안동까지 가는 동안 내릴 비가 다 내리고 안동에서는 비가 그치면 좋겠다.



▲ 드디어 출발이다. 학교에서 출발하기 전 선생님, 학부모님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학부모님들을 카톡 방에 초대하여 중간중간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학부모님들도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안동까지 이동하는 것은 최o창 선생님과 김o한 선생님이 승합차를 이용해 도와주시기로 했다. 안동으로 이동하는 동안 팔공산을 넘으면서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다. 아이들은 잠을 설쳤는지 걱정도 없이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다행스럽게도 군위를 지나는 동안 빗줄기가 가늘어지더니 안동에 도착할 무렵에는 비가 거의 멈췄다.

안동에 도착한 후 간단하게 몸을 풀고 자전거에 앉아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다소 들떠 있는 듯했다. 출발하기 전에 자전거 대열의 순서를 정했다. 내가 제일 앞에 서고 연습을 하지 않은 동규를 두 번째로 세웠다. 체력이 약하거나 자전거 실력이 부족할수록 선두에 서야 될 힘들다. 동규 뒤에는 체력이 다소 약해 보이는 성우를 세우고, 상대적으로 연습을 많이 한 산과 형준이를 뒤에 세우고 홍o봉 선생님이 후미에서 뒤처지는 아이들을 독려해 오기로 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지만 달리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아이들은 밝은 표정으로 다소 들떠 보였다. 순조로웠던 출발이 30분도 지나지 않아 악조건으로 바뀌었다. 빗방울이 점차 굵어지고 제법 높은 언덕도 나타났다. 오는 비는 예상했던 터여서 감수하고 타겠는데 언덕이 문제였다. 학교 체력단련실에서 헬스용 자전거만 타다가 막상 오르막길을 만나니 올라갈 수가 없었다. 체력도 문제였지만 언덕길을 오르는 요령이 없었다. 달려오는 가속도와 기어 변속을

적절히 활용하여 언덕을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 요령이 없다 보니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 길을 오를 수 없어 온전히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삼백 미터의 언덕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자니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자존심도 상했다. 오전 내내 언덕이 나타날 때마다 안장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어야 했다. 게다가 비가 멈추고 햇빛이 나자, 더위와 싸움을 해야 하니 좌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주행 속도도 점점 느려져 가고 아이들은 짜증이 났다. 이런 상태로 5일에 걸쳐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인솔하는 나와 홍 선생님의 걱정이 많아졌다. ‘이 아이들을 5일 동안 끌고 갈 수 있을까?’



▲ 아이들은 오전 내내 언덕이 나타날 때마다 안장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어야 했다.

점심을 먹기로 예정된 곳은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였다. 부용대에 들러 하회마을을 조망한 다음에 구담리로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한 시간 이상 지체되어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러 폭발할 것만 같았다. 얼른 계획을 변경하여 풍천면 소재지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다. 마침 아이들이 좋아하는 중국집이 있었다. 자장면에 탕수육을 곁들였더니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묻어 나온다. 다행이었다.

자장면으로 기운을 차린 일행은 부용대를 찾았다. 비는 완전히 멈춰서 햇빛이 쨍쨍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웠지만 아이들은 뜨거운 햇살에 고통스러워했다. 차라리 비가 오는 것이 낫겠다고 투덜거렸다.



▲ 부용대에서 본 하회마을

부용대에서 바라보는 하회마을의 전경은 일품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하회마을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하회별신굿이 유명하며 선조 때 정승을 지낸 서애 유성룡 선생 형제가 기반을 잡아 집성촌을 일구고 살아왔다는 설명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빨리 더위와 햇빛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부용대를 내려와 강변 자전거길로 접어들며 당분간 오르막길 없이 평지가 이어진다고 하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힘이 많이 들었던가 보았다. 이제 30km 남짓 달려왔고 목적지인 상주보까지 45km 가까이 남았는데 아이들을 격려해서 이끌고 가자니 머리가 아득해졌다. 강둑에서 벗어나 마을 주변을 지나면서 조금만 오르막길이 나타나도 아이들은 죽는 시늉을 하며 비명을 질렀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 당분간 오르막길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르막이 많이 나와요?” 라며 원망이 대단했다.

장마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변 자전거길은 진흙탕이 자주 나타나 일행의 속도를 늦추는 데 한몫했다. 종일 자전거 안장에 앉아 있는 것도 고역이었다.

연습을 성실히 해서 제일 잘 달릴 것으로 예상됐던 형준이가 계속해서 뒤로 처졌다. 휴식을 취할 때는 아예 길바닥에 누워버려 지켜보는 마음이 짠했다. “많이 힘드냐?” 고 물으니 “허리가 많이 아프다.” 고 했다. 오르막을 오르면서 기어 조정이 서툴러 무리하게 힘을 가해 페달을 밟은 탓인 것 같았다.



▲ 계속해서 뒤로 처지던 형준이가 휴식을 취할 때는 아예 길바닥에 누워버려 지켜보는 마음이 짠했다.

아이들이 지쳐 예정된 일정보다 늦어지다 보니 상주 자전거박물관에 도착하니 벌써 문을 닫을 시간이 됐다. 아이들이 자전거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게 볼 텐데 아쉬웠다.

자전거의 도시 상주에는 2002년 10월 26일에 전국 최초로 자전거박물관이 설립되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자전거를 전시해 놓아 200년의 자전거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넓은 평야를 끼고 있는 상주는 평지가 많아 예로부터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었다. 1925년 상주역 개설 기념으로 개최된 '조선팔도 전국 자전거 대회'는 일대 사건이었다. 일제시대에 열린 이 대회에서 조선 사람인 엄복동 선수가 우승하면서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 영향으로 상주에서는 자전거 타기 붐이 조성되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전거박물관 인근에는 낙동강 1경으로 꼽히는 「정천대」가 있다. 조선 인조 15년 당대의 석학 우담 채득기 선생이 학문을 닦던 「무우정」 등 다양한 유적을 만날 수 있고, 드라마

‘상도’ 세트장과 출렁다리, 놀이기구 등이 있어 국민관광지로 불리고 있다.

달리는 동안 계속해서 “언제쯤 도착하느냐?” 는 말을 하는 아이들을 다독여 상주보에 도착했을 때는 6시 반이 지나가고 있었다. 민박집 주인이 트럭을 몰고 마중을 나와 있어 “여기서부터는 자전거를 트럭에 싣고 차를 타고 이동한다.” 고 했더니 아이들이 반색했다.



▲ 상주보에 도착한 아이들이 많이 지쳐있다.

오늘 묵을 곳은 농가 민박집이어서 숙소 환경이 좋지 못하였다. 낙동강 자전거길 주변 대부분 숙소가 자전거 여행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다 보니 상태가 만족스러운 곳이 흔치 않았다. 도회지에 살던 아이들인지라 시골 민박집이 마땅치 않았지만, 그리 내색하지는 않았다. 무사히 도착해 쉴 수 있다는 데 만족하는 듯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전체 평가’ 를 할 때 아이들은 숙소 문제를 지적했다. 낙동강 자전거길 주변의 숙소 상태나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이해를 구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워 다음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쉬는 동안 홍 선생님과 내일 일정에 대해 의논했다. 그런데 3일째 일정이 다소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오늘 아이들이 달리는 실력을 보니 90km 가까이 되는 3일째 구간을 소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였다. 숙소에서 오늘 중착 지점인 상주보로 돌아가지 않고 도로를 타고 중동교로 바로 접근하면 10km 가까이 단축할 수 있고, 내일 아침에 서둘러 출발하면 대구 부근에서 숙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일째 구간의 이동 거리를 조금 늘리고 3일째 구간의 거리를 조금 줄이면 양일 모두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급히 숙소를 물색했더니 달성군 하빈면에 적당한 숙소가 있어 예약되었던 왜관의 숙소를 취소하고 하빈면에 새로 예약했다. 이들 모두 75km 정도 달리면 되게 되어 있어 여유가 있어 보였다.

저녁 식사를 하고 한 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한자리에 모여 오늘 하루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전거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신장이다. 회복탄력성은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핵심이다. 자기조절능력에는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이 포함되어 있고 대인관계능력에는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자전거 여행을 통해 회복탄력성 신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에 둘러앉아 진행하는 평가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낮에 자전거를 타면서 마냥 힘들어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하며 의미를 부여하여 내면을 강화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잘 운영해야 이번 자전거 여행이 아이들에게 보다 의미있는 행사로 다가올 것이다.

평가는 감정 나누기부터 시작했다. 현재의 감정과 낮에 자전거를 타는 동안의 감정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힘을 키운다.



▲ 회복탄력성 신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에 둘러앉아 진행하는 평가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 아무도 아이들의 감정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으로 소통하였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며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오늘 힘들었던 마음을 치유하고 내일 다시 달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첫날 평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런 자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감정과 이성적인 생각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단답형의 감정과 생각을 겨우 이야기했다. 진행자가 공감도 해주고 추가 질문을 해가며 이끌어 갔지만 30분을 넘기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한 위로와 격려로 마음을 추슬렀다. 낮에 자전거를 타는 동안 “이런 길을 5일 동안 타야 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며 투덜대던 산과 동규도 ‘내일은 열심히 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고, 하루 종일 뒤쳐졌던 형준이는 내일은 심기일전하여 뒤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허리에 파스를 한 장 붙이고 잤다.

평가회를 마치며 내일은 자전거를 타면서 ‘그동안 자라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도록 숙제를 냈다. 모래는 ‘어른이 되어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했다. 평가회 시간에 자기 생각을 잘 이야기하도록 준비를 시킨 것이었다.

이번 자전거 여행은 둘째 날이 고비다.

일곱 시에 일어나 세면하고 아침 식사를 한 후 여덟 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시간 맞춰 잘 일어났다.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할 때보다 훨씬 재바르게 준비하는 것 같아 기특했다. 어제, 햇볕이 강한 대낮에 달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경험한 덕분에 아침에 일찍 출발하자는 선생님의 말씀을 새겨들은 것 같았다.

종인이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일곱 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짐을 챙겨 출발 준비를 마쳤다. 한두 명이 일찍 일어나 서두른 덕분에 늦게 일어난 아이들도 기다리지 않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고 아침 식사도 든든히 했다.

모두 서두른 덕분에 여덟 시 십분 경에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었고 간간히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었다. 강수량은 그리 많을 것 같지 않아 조금씩 보슬비가 내리면 우리가 달리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 모두 서두른 덕분에 여덟 시 십분 경에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날씨가 흐려 다행이었다.

이번 자전거 여행은 둘째 날인 오늘이 고비다. 충분히 잠을 자서 출발할 때는 몸이 가볍겠지만 안장에 한 시간만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아프고 어제의 다리 피로도 되살아 날 것이다. 아나나 다를까 한 시간이 지난 후부터 아이들은 엉덩이가 아프다며 투덜대기 시작했고 형준이는 허리가 아프다며 휴식 시간마다 도로에 누워버렸다. 그나마 첫 휴식 시간까지는 40분 동안 13km 정도 달렸는데, 그 이후로는 휴식 간 시간은 짧아지고 이동 거리는 줄어들었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하빈면까지 75km를 간다고 생각하니 여러모로 걱정이 앞섰다. 다행히 아침에 일찍 출발하였고 대부분 평지여서 자주 쉬면서 가면 다섯 시 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심 식사 전에 최대한 많이 이동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오후에는 쉬엄쉬엄 갈 계획이었다.

체력이 약해 보였던 성우가 의외로 잘 달렸다. 힘이 든다고 하면서도 곧장 앞장서 달렸고 종인이라도 성우 뒤를 따라 불평없이 묵묵히 달렸다. 어제 뒤쳐졌던 형준이가 나름대로 분발했지만, 오늘은 산과 동굴까지 번갈아 쳐지기 시작했다. 흥 선생님을 앞장서 보내고 뒤에서 아이들

의 자전거 타는 모습을 지켜보니 동규가 페달을 젓는 것이 규칙적이지 못하였다. 장거리 여행 때는 70% 정도의 힘으로 종일 꾸준히 페달을 돌려야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페달을 밟다가 쉬고, 다시 페달을 빠르게 밟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다. 에너지가 급속도로 소모되어 장거리 여행에는 부적절한 주법이었다. 다리의 지구력이 약하고 몸이 지쳐가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주법을 수정할 것을 주문했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결국 해평면을 지날 무렵 동규는 달리는 것을 멈춰 버렸다. 쉬는 동안 다리를 주물러 주며 위로 하였지만, 동규의 자신감은 많이 떨어져 있었다.

「구미」까지는 가야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열두 시 전에는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뒤처지는 아이들을 독려하며 오느라 구미에 도착했을 때는 열두 시 반이 지나 있었다. 「구미」는 공단 지역이라 자전거길 주변에는 식당이 없고 「금오공대」나 시내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자니 자전거길을 1km 이상 벗어나야 해서 부담스러웠다. 아쉬운 대로 기사 식당을 찾아서 밥을 먹자고 하니 아이들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다.

밥을 먹는 동안 제법 긴 휴식을 취한 덕분에 아이들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오전에 43km를 왔으니 오후에는 32km만 가면 된다. 자전거 여행객들에게는 한 시간 반도 걸리지 않을 거리였지만 지친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멀고 먼 길이었다. 두 차례 정도 쉬면 될 구간을 네 번씩이나 쉬면서 달렸지만, 아이들에겐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대가 낮은 지역에는 장마 때 침수된 영향으로 자전거길이 진창이 되어 있어 아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흐린 날씨와 가끔 흩뿌리는 빗방울은 그나마 지친 아이들의 위안이 되었다.

「구미」를 전후로 해서 생태교육을 할 장소를 둘러보려 했는데 장마로 불어난 강물 때문에 무산이 되었다. 「해평면」 부근의 모래톱도 물에 잠겨 사라지고 구미보와 칠곡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던 녹조도 강물에 쓸려 내려가 버렸다.

「구미시」와 「칠곡군」 일대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전자공업을 중심으로 기술집약화·전문화·계열화를 통한 신기술 개발 및 제품 고급화로 전자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제1단지는 1969년 9월에 착공하기 시작하여 제4확장 단지까지 2015년 7월 16일에 준공되었다. 제2~3단지는 구미시 임수동, 구포동, 시미동, 진평동과 칠곡군 석적읍 일대에 1977년 4월 22일 7.240㎢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며 1977년 7월 28일에 착공하여 1995년 9월 1일에 준공되었다. 제2~4 확장 단지는 구미시 옥계동, 칠곡군 산동면 일대에 1977년 4월 22일 16.482㎢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1977년 7월 28일에 착공하여 2015년 7월 16일에 준공되었다. 제4단지는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 금전동, 양호동, 구포동 일대에 1996년 6월 11일 6.766㎢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 5월 14일에 착공하여 2015년 7월 16일에 준공되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구미역에서 4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LG디스플레이, 효성티앤씨, 삼성전자, 코오롱인더스트리, LG전자, 한화 등의 주요 업체가 입주해 있다.

「구미」를 지나 「왜관」으로 가는 길에 빗방울이 흩뿌렸다. 다행히 강수량이 많지 않아 더위를 잊기에 적당하였다.

강폭이 넓고 교각이 높은 「구미대교」를 지날 때는 잠시 현기증이 났다. 인도는 차로와 분리되어 있고 높은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한데도 일순간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이번 자전거 여행을 하는 목적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감을 얻는 데 있다. 두려움은 모든 배움에 이르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아이들이 여러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도 성장하는 동안 누적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이번 자전거 여행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면 좋겠다.



▲ 왜관 지역을 지나고 있는 모습

「칠곡보」를 지나 「왜관」에 들어서면 옛「왜관철교」가 나타난다. 6.25 전쟁이 치열할 때 이 철교를 폭파해 낙동강 전선 유지에 많은 역할을 한 곳으로 유명하다. 당시 왜관에서 진행된 전투에 참여한 군인은 한미 연합군 1만 명, 북한군 1만 7,5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왜관의 방어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당시 진행 중이던 인천상륙작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었다. 한미연합군 측에서는 북한군이 강을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존재하던 유일한 다리인 「왜관철교」를 폭파함으로써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왜관철교는 “호국의 다리”로도 불린다.

15세기 초 조선 조정은 노략질을 일삼는 왜구들의 침탈이 골칫거리였다. 조정에서는 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직 수여를 통해 귀화를 장려하는 등 회유책도 실시했다. 그러나 입국 왜인은 아무 곳이나 무질서하게 정박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장소를 제한하여 왜인들의 숙박·접대·무역처를 제공하면서 왜관을 설치했다. 1407년 부산포와 내이포(제포) 등 2개의 항구를 개항하였고, 1426년 울산 염포를 추가로 개항해 ‘삼포왜관’ 체제를 갖췄다. 왜관은 왜사(倭使), 수직(受職) 왜인, 상왜(商倭)의 숙박 및 접대와 교역을 담당하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라 초량왜관을 거점으로 일본 공사관과 거류지가 설치되어, 일본 상인들이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상업활동을 전개하면서 왜관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져서 소멸되었다. 서울에도 왜관을 운영했는데, 이 왜관은 왜인만을 위한 상설적인 관사로 확대되면서 동평관으로 개칭되었다. 왜관을 통해 왜로부터 유입된 은·동·유황 등은 동전·무기 제조 등에 기여했다.

현재의 칠곡군에 있는 「왜관」은 낙동강 하류에서 뱃길을 따라 올라온 물건을 서울로 실어가기 전에 보관했던 창고가 있어 소규모 왜관이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와 왜관읍 금산리 등에

마련됐었다. 1904년에 경부선 철도가 설치되고 왜관역이 건설되면서 점점 이 일대를 「왜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914년에 파미면과 노곡면을 합쳐 왜관면으로 개편하였고, 칠곡군청을 기존 칠곡면에서 군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지인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다른 지역은 왜관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지만, 이곳은 현재까지 「왜관읍」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왜관」이라는 지명을 변경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왜관읍」에는 현재 주한미군 부대인 미 육군 제3보병사단 예하 부대가 주둔한 「캠프 캐롤」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왜인 집단과 이미지가 겹쳐 근대사의 슬픈 일면을 느끼게 했다.

아침에 일찍 출발한 덕분에 다섯 시에 숙소가 있는 달성군 「하빈면」에 도착했다. 지쳐있던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방을 배정하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 학교에서 선생님 두 분이 간식을 사 들고 위문을 오셨다. 아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지친 동규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만큼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홍 선생님이 동규 어머니와 통화를 하여 “지금 포기하면 앞으로든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게 될 겁니다. 잘 달래서 끝까지 달리도록 해보겠습니다.”며 설득했다. 동규와 친한 산이 나서서 동규를 설득하기도 했다. 다행히 동규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끝까지 달리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갈 때는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진행된 평가 시간에는 위문 오신 선생님 두 분도 함께 참여하셨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아이들의 기력도 많이 회복되어 농담도 오가고 웃음꽃이 피어났다.

오늘은 어제보다 소감 나누기가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어제 미리 숙제를 내준 것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오늘 일정의 소감을 나눈 다음에 이때까지 가장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산과 동규가 “이때까지 자전거 여행처럼 힘든 적이 없었다.”고 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형준이와 종인이가 초등학교 때 방과 후에 학원을 뱅뱅 돌며 선행학습에 내몰려 너무 힘들었다며, 이에 대한 반항으로 중학교 때는 학습을 거의 포기했다고 말할 때는 너나없이 마음이 아팠다. 이번 자전거 여행이 아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오늘 아픈 마음을 풀어 놓음으로써 마음속의 상처가 치료되고 새살이 돌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전거 여행 3일째 - 동규가 힘을 내기 시작했다.

아침에 숙소를 나서는 동안에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졌다. 오늘도 흐린 날씨가 우리 여행을 도와줄 듯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출발 후 30분도 되지 않아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님이 고개를 내밀었다.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에 있는 「적포교」까지 78km를 달려야 한다. 오늘도 어제처럼 힘이 있는 오전에 많이 달리고 오후에는 쉬엄쉬엄 달리기로 했다. 그런데 점심 식사할 곳을 물색하니 적당한 거리에 식당이 없다. 「현풍」에서 식사하자니 거리가 37km밖에 안 되고, 그 이후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적당한 곳을 찾으니 「구지면」에 한식뷔페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리가 55km나 된다. 아이들과 의논한 결과 현풍에서 간식을 먹고 구지면까지 가서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다. 아마도 오후 한 시를 훌쩍 넘겨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 출발은 좋았다. 대부분 평지여서 출발 후 40분 만에 강정보에 도착하였다. 아이들도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이후로 뜨거운 햇빛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출발한 지 두 시간도 되지 않아 아이들이 지치기 시작했다. 그들을 찾아 자주 쉬는 것이 필요했다.

현풍에 도착하여 마트에 들어가 먹고 싶은 것을 고르라고 하니 아이들은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집어 들었다. 몹시 더웠던 모양이었다. 점심을 먹을 곳까지 가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거라며 빵과 바나나를 사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했다. 아이들은 가게 앞 주차장에 있는 작은 그늘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이제 아이들은 품위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도 않았다. 자유로운 여행객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았다.



▲ 가게 앞 주차장에 있는 작은 그늘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이제 아이들은 품위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도 않았다.

현풍에서 간식을 먹고 출발할 때는 햇빛이 더 뜨거워져 있었다. 점심을 먹을 곳에 도착하려면 한 시간은 넘게 달려야 할 텐데 아이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풍에서 「도동서원」으로 가는 길은 「다람재」라는 고개를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340m 정도의 오르막이지만 경사가 급하여 아이들 대부분이 자전거를 끌고 넘어가며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다. 그런데 최근에 산 아래로 「도동서원터널」이 만들어지면서 자전거길도 함께 만들어졌다. 덕분에 다람재를 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아이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도동서원」은 선조 1년(1568년), 한훤당 김굉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비슬산 기슭에 「쌍계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선조 37년(1604

년)에 지금의 위치에 재창건하고 「보로동서원」이라고 이름하였으며 1607년 '도동'이라는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도동서원은 보수공사가 한창이었다. 서원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고 서원 앞에 있는 500년 된 은행나무 그늘에서 쉬는 것도 불가능했다. 아쉬운 대로 정자 그늘에서 잠시 쉬며 숨을 고르는데 지역 주민이 정자 지붕 밑에 달린 선풍기를 틀었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시원한 바람을 몇 삼아 정자 마루에 누워 눈을 감았다. 잠을 청하는 듯한 모습이 애처로워 깨우지 못한 사이 휴식 시간이 길어져 버렸다.

점심을 먹을 식당까지 10km는 가야 하는데, 그 사이는 적당히 설만한 그늘도 없고 넘어야 할 작은 언덕도 몇 개 있다. 강을 따라 곧게 뻗은 긴 길을 가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다. 앞서 달리는 성우와 종인이라도 거친 숨을 내쉬었다. 이를 악물고 이겨내려는 표정이 역력해 다소 안쓰러웠다. 속도를 늦추고 성우와 나란히 달리며 말을 걸었다. 중학교 생활을 어땠으며 대안학교를 선택한 동기와 고등학교 와서는 무엇이 좋았는지 물어봤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이라도 힘든 몸을 잊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잠시 뒤돌아보니 산과 동규가 보이지 않는다. 홍 선생님도 보이지 않았다. 조그마한 아카시아 그늘에 서서 휴식을 취하며 홍 선생님께 연락을 취했더니 산과 동규가 보이지 않는다고 찾으러 가신다고 했다. 대구교육청 「낙동강수련원」 근처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 구지면 소재지 쪽으로 가버린 모양이었다. 아이들의 지친 표정에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먼저 가서 점심을 먹고 있겠다.”고 하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3km밖에 안 되는 길이 꽤 멀게 느껴졌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뒤쳐진 아이들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점심을 먹었다. 먼저 도착한 아이들도 많이 지쳐있었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홍 선생님 일행은 도착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텐데.....’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정자에 앉아 쉬려고 할 때쯤 홍 선생님이 도착했다. 산과 동규가 많이 지쳐 보였다.

점심 식사 후 아이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 늦은 점심이었지만 오전에 많이 달려서 오후에는 23km 정도만 가면 되니 여유가 있었다. 아이들도 힘을 냈다. 충분한 휴식도 도움이 됐지만 남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었다.

특히 동규의 변화가 놀라웠다. 늘 뒤쳐져서 힘들어하고 언덕만 나타나면 몸서리를 치던 아이가 황강 합수 지점부터 대열의 맨 앞에서 달리기 시작했다. 언덕이 나타나도 망설이지 않고 열심히 페달을 밟아 단숨에 올라갔다. 덕분에 다른 아이들도 자극이 되었다. 항상 선두를 유지해왔던 성우는 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동규와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반복했다. 나는 그것을 지켜보며 묵묵히 따라갔다. 덕분에 주행 속도가 무척이나 빨라졌다. 결국 적포교를 앞둔 마지막 오르막길에서 동규는 성우를 따돌리고 일등으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놀라운 반전이었다. 이제 동규는 중도 포기의 고비를 넘긴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소감 나누기 시간에 동규의 반전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화제가 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포기할 생각까지 했던 아이가 목적지에 선두로 도착했으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무엇이 동규의 마음을 자극하여 성취 욕구를 불러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규에게는 삶의 태

도를 바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음이 분명했다. 동규는 이때까지 힘든 일에 도전하거나 극복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다. 자전거 여행 참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아버지께 연락했더니, ‘그 아이는 낙동강 중주 자전거 여행을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며 신뢰를 주지 않은 것도 도전과 극복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되었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동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기를 기도했었다. 오늘 동규가 그 기도에 대한 화답을 한 것 같았다. 아마도 오늘 이후로 동규는 ‘자전거 여행 중도 포기’라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을 것이다.



▲ 황강 합수 지점을 지날 무렵부터 동규가 대령의 맨 앞으로 치고 나가 달렸다. 놀라운 반전이었다. 멀리 적포교가 보인다.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이를 악물고 달렸을 동규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에 소감 나누기를 하는 동안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동규도 자신을 대견해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오늘 활동 소감을 이야기했다.

“무엇을 하고 살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형준이는 헬스트레이너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을 해보니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성우는 음악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산도 음악을 하기 위해서 요즘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했다. 종현이와 동규는 아직 무엇을 하면서 살지 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하면 행복할지 진지하게 찾아보고 싶다고 했다. 특히 동규는 소감 나누기를 마친 후, 홍 선생님에게 따로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마음을 열었다. 동규가 홍 선생님을 좋은 어른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 흐뭇한 밤이었다.

박진고개는 너무 가팔라서 우회한다.

넷째 날 일정은 적포교에서 출발하여 삼랑진까지 82km를 주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출발 후 14km 지점부터 박진고개를 넘어야 한다.

박진고개는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에서 의령군 부림면 박진교까지 약 4km 구간을

말하는데, 낙동강 자전거길에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선정 「자전거 명품 코스 20선」 중의 한 곳으로 고갯마루에서 보는 경치는 일품이지만 경사가 급하여 많은 자전거 여행객이 힘들어한다. 나도 과거에 「마음이자라는학교」 학생들의 자전거 여행을 인솔하기 위한 답사길에 박진고개를 넘어 보고, 아이들에게는 다소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령대로」 쪽으로 우회하여 다녀왔던 기억이 있다.

홍 선생님에게 박진고개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여러 경로를 알아보시고 창녕 쪽으로 우회하자고 하셨다. 우회로는 적포교를 넘어 창녕군 「유어면」과 「장마면」을 지나 「남지읍」으로 가는 길이다. 대부분 평지이고 두어 개 있는 언덕도 그리 높지 않은데다 거리가 다소 단축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할 것 같았다. 아이들도 당연히 대환영이었다.

오늘도 오전에 많이 달리고 더운 오후에는 쉬엄쉬엄 갈 생각이다. 점심 식사는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여덟 시에 출발하여 네 시간에 걸쳐 55km를 달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적포교를 출발하여 10분 정도 달리자 「유어교」라는 작은 다리가 나타나고 「우포늪」을 알리는 이정표가 보였다. 「유어교」 아래를 흐르는 토평천을 거슬러 4km 정도 올라가면 「우포늪」이 나타난다. 「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보전지역 중 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3월 2일에는 국제협약인 ‘람사협약’에 등록하고, 보존 습지로 지정되었다.

높은 습지의 일종으로 수심 3m 이하의 흙이 많은 물웅덩이를 말한다.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늪의 바닥까지 투과하여 순채, 검은말, 새우말, 물수세미와 같은 침수식물이 바닥 전면에서 무리 지어 서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의 사체와 같은 유기물이 바닥에 퇴적되어 영양도 풍부하다.

높은 호소의 변화과정에서 노령기 단계로 볼 수 있다. 호수는 변화가 완만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이 바뀐다. 일반적으로 호수가 늪이 되고 늪이 소택지로 변화하기 때문에 결국 습지는 시간이 지나면 초원으로 변화한다.

습지는 물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내륙습지와 연안습지가 있다. 연안습지는 만조와 간조 때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경계 지역에 형성되어 삼각주, 갯벌, 하구, 맹그로브 숲, 산호초 등을 형성하기도 한다. 내륙습지는 강 언저리나 냇가 등 담수가 흐르는 지역에 형성되며 호수, 늪, 하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인간의 필요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습지를 인공습지라고 하는데, 저수지, 논, 염전, 매립간석지 등이 있다. 습지는 홍수 조절, 해안선의 안정화 및 폭풍 방지, 수서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과 먹이 공급, 기후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종다양성의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원시 저층 늪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우포늪」은 총면적이 2,505㎡에 이르는 천연 늪으로 희귀 생물이 서식하며 동식물의 천국을 이루고 있다. 800여 종의 식물류, 209종의 조류, 28종의 어류, 180종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17종의 포유류 등 수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포늪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지금의 우포늪 동쪽에 있는 「대대제방」을 축조하여 「대대들」을 개간하여 우포늪은 3분1가량 줄어들게 되고 제방을 만들어 홍수 피해가 전보다 줄어들자 마을 뒷산 기슭에 동네를 이루고 살던 「대대리」 주민들도 그

아래 평평한 곳으로 대부분 내려와 살게 되었다.

1962년 12월 백조(고니) 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오다가 1973년에 백조(고니)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제되면서 우포늪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 도시의 산업화와 농경지 확장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낙동강과 토평천에 제방이 만들어지고 주변의 우포늪과 같은 사물포, 용호 등과 크고 작은 대부분의 늪지들이 농경지로 변하였다.

이때부터 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있게 되었다. 이용과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은 어로와 대청이(민물조개), 고동 등을 채취하여 생활해 온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을 우려했고, 환경단체는 보호구역 등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번의 공청회와 대화를 거듭하여 환경부는 1997년 7월 26일 우포늪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듬해인 1998년 3월 2일에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하고, 1999년 2월 8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농사를 짓던 사유지 20만 평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입하고 환경감시원을 두어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불법어로와 환경감시를 하였다.

자연생태계보전지역과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이후, 우포늪은 예전에 비해 훼손이 훨씬 줄어들었다. 사람의 간섭이 줄어들자 이곳에 살아가는 생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야생 조류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한 종류의 새들만 우포늪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청정한 우포늪을 활용한 각종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여는 등 생태계 보전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포늪이 속해있는 창녕군은 물론, 지역 주민과 민간 환경단체들도 우포늪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포와 같이 큰 강에 가까이 있는 습지는 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강의 주변에는 강이 굽이굽이 흐르다 잘려서 생긴 우각호나 낮은 지대에 물이 고여 생성되는 습지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습지가 있다. 우포는 화왕산에서 발원한 토평천이 늪으로 유입된 후, 토평천을 통해 낙동강 본류와 적포 부근에서 연결된다.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나 홍수기가 되면 낙동강의 수위가 평상시보다 7-8m 이상 상승하고 상승한 낙동강 본류의 수위는 토평천을 거슬러 올라가 우포늪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쳐져 습지의 수위가 4-5m 이상 크게 상승한다. 홍수로 증가한 수위는 3-4일에서 길게는 10여 일까지 머물며 홍수에 견디지 못하는 육상식물들을 죽게 만들고 수생 식물을 번성하게 한다. 홍수가 끝나면 우포늪이 만들어낸 풍부한 유기물과 수생 식물이 정화한 맑은 물은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 강물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참고, 창녕군 누리집)

창녕은 임진왜란 때 광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활동했던 근거지다. 그래서 낙동강 자전거길 주변에는 광재우 장군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광재우 장군은 남명 조식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산을 정리하여 의병을 일으켜 현풍, 창녕, 의령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천강홍의대장군'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붉은 옷을 입고 전투에 나서서 홍의장군이라고 불렸다. 대구교육청 「낙동강수련원」을 지나서 국가산업단지가 끝나는 지점에 광재우 장군의 묘지가 있다.

의령에 접경한 낙동강 지류는 기강이라 불리는데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 지점이다. 이곳은 광재우 장군이 왜군에 대항해 첫 승전보를 올린 곳이다. 광재우 장군은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왜군들이 남강을 통해 호남으로 진출하려는 왜군을 솔바위에서 섬멸(정암진 전투)하여 의령을 지키고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았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 솔레마을 입구에는 정려각(旌閭閣)이 세워져 있다. 광재우 장군이 속한 현풍 광씨 집안에서 배출한 충신 1명, 효자 8명, 열부 6명을 기린 12정려각이다.

광재우 장군은 우포늪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유격 전술에 능했다고 한다. 토평천 하류의 낙동강에 출몰한 왜구를 유인하여 우포늪 주변의 습지로 몰아넣고 매복한 의병들이 일시에 공격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적포교를 지나 남지교에 이를 때까지는 국도와 지방도를 달려야 한다. 중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만 일부 구간에만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걱정이었다. 내가 제일 앞서고 홍 선생님이 맨 뒤에서 달리며 아이들 간의 거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했다. 경로도 최대한 차량 통행이 적은 길을 선택했는데, 다행히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통행량이 많지 않았다. 몇 군데의 언덕을 제외하고는 평지가 대부분이어서 주행 속도도 빨랐다. 이제는 아이들이 언덕길도 익숙해진 덕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달릴 수 있었다.

남지대교를 지나면 그때부터 강을 끼고 달리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나니까 안전하다. 이 구간에서는 홍 선생님이 드론을 띄워 아이들의 여행 모습을 촬영하기로 했다. 아이들도 자신들의 활동 모습을 영상에 담는다니까 좀 더 진지해졌다. 내가 아이들을 인솔하고 홍 선생님이 먼저 달려가 드론을 띄울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달리는 모습을 촬영했다. 좋은 영상을 남기기 위해 몇 차례 전력 질주를 해야 해서 많이 지칠 법도 한데 홍 선생님은 내색도 하지 않으셨다.

더위와 싸우며 두 시간 반을 달려 다소 지칠 무렵에 오아시스가 나타났다. 「창녕함안보」 사업소 건물에 있는 매점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 개씩 돌리자 아이들의 힘든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과자며 음료수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다. 이제 점심때까지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넉넉히 보충한 것 같다.

창녕함안보를 지나 길곡면 「노고지리공원」을 지날 때 제초 작업을 하시는 아저씨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자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이 조그마한 행동에서도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

노고지리공원을 지나면 임해진 삼거리에 「소우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곳에서 200m 정도는 경사가 급한 오르막이다. 차량 통행이 다소 많고 갓길이 없는 구간이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다. 게다가 오른쪽은 강물로 이어지는 낭떠러지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한 갓길에 붙어서 달리고 힘에 겨우면 내려서 끌고 올라오라고 미리 주의를 줬지만, 아이들은 타고 오르려고 안간힘을 썼다. 며칠 사이에 자전거 실력이 향상되기도 했지만 어려운 일에 도전하려는 용기가 많이 생긴 것 같았다. 이 마음이 일상생활에도 이어지면 좋겠다.

점심은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서 먹었다. 점심을 먹기 위해 강을 건너왔다가 다시 건너가야 한다. 아이들은 자기 몸이 피곤할 때는 조금이라도 돌아가거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수산교를 통해 강을 넘어와 점심을 먹고 좀 더 하류에 있는 수산대교로 다시 강을 넘어갔지만, 아이들은 크게 의식하지 못한 것 같았다. 몸이 피곤해 달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 방향 감각을 놓쳐버린 모양이었다.

오후 일정은 이동 거리가 짧아 부담이 적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해 마을 정자에 앉아 쉬기도 하고 가로수가 우거진 자전거길을 천천히 달리며 강 풍경을 즐기기도 했다.



▲ 동규 자전거 바퀴에 펑크가 나서 홍 선생님이 수리를 하며 즉석 강의를 하셨다.

한림면 시산리를 지날 무렵 동규 자전거 바퀴에 펑크가 났다. 홍 선생님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즉석 강의를 시작했다. 자전거 바퀴를 분리하는 방법과 튜브 빼는 방법을 설명했다. 튜브에서 구멍이 난 부분을 찾고 타이어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했다. 아이들은 열심히 설명을 들었지만, 기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은 쉽게 잊히는 법이다. 그러나 자전거 여행을 하려면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뇌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자전거 수리를 마치고 마지막 관문인 모정고개로 향했다. 최근에 모정고개 아래에 자전거 터널이 생겼다는데, 작년에 중학생들을 이끌고 왔다가 터널을 찾지 못해 힘들게 모정고개를 넘었던 기억이 있다. 오늘은 이 터널을 꼭 찾아 아이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모정마을 부근을 몇 번이나 오갔으나 터널을 찾지 못했다. 더운 날씨에 길을 헤매고 있으니 아이들의 짜증 지수가 고조되었다. 아이들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 터널을 찾았다. 마사마사(masa masa)터널이다. 마사마사터널 입구가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 쉽게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었다.

마사마사터널은 1905년 삼랑진과 마산 사이에 연결된 경전선이 지나던 터널로 모정터널이라 불렀다. 1963년, 인근에 마사터널이 개통되어 경전선이 이동한 후 2010년에 KTX 복선이 개통되자 두 터널 모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마사터널은 ‘와인터널’로 관광 명소가 되었고, 모정터널은 개인에게 임대되었다가 2019년부터 자전거 통행 도로로 활용하고 있다.



▲ 마사마사 터널 입구를 찾느라 한참을 헤매었는데, 굴 속의 서늘한 기운이 아이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했다.

340m 정도 길이의 마사마사터널은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와 김해시 한림면 모정마을을 이어주고 있는데, 돌을 깎아 만든 벽면이 은은한 조명으로 아늑하게 느껴졌다. 터널 바깥의 뜨거운 열기는 터널 속으로 진입하는 순간 온데간데없고 터널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아 한기마저 느껴졌다. 터널을 찾아 해맬 때 그렇게도 투덜거리던 아이들도 터널 속의 온화하고 시원한 기운이 좋은지 감탄사를 연발했다.

마사마사터널 덕분에 30분 이상 사투를 벌여야 할 모정고개를 5분도 안 걸려 통과했다. 길을 못 찾아 해매며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마사마사터널을 통과하면 마사리 쪽에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몇몇 조각 작품이 눈에 띄고 컨테이너 건물로 보이는 자전거 카페도 하나 있다.

여기서부터 숙소까지는 20분 이내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터널에서 기분 좋게 내리막을 달리면 「생림오토캠핑장」이 나오고, 잠시 후 거미줄처럼 강물 위에 얹힌 여섯 개의 다리를 마주하게 된다. 「삼랑진교」 무리다.

우리가 자전거로 지나게 될 다리는 「옛 삼랑진교」로 1905년에 개통되어 경전선을 이어주다 1962년 말 새로운 다리의 건설로 철교로서의 수명을 다하였다. 건설 당시부터 홍수가 지면 침수되는 수난을 겪어 보수를 거듭하다 새로 건설된 「낙동강철교」로 대체된 것이다. 교각 사이에 일곱 개의 대형 트러스가 올려진 모양이 영화 속의 다리를 닮아 「콰이강의 다리」라 불리는데, 지금은 사람과 자전거와 승용차가 주로 통행한다. 입구에는 대형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승용차만 조심스럽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옛 삼랑진교」 아래쪽(동쪽)에는 1962년 12월에 개통된 「낙동강철교」가 있는데, 이 또한 2009년에 위쪽(서쪽)에 개통된 「경전선 낙동강철교」로 대체되었다. 수명을 다한 「낙동강철교」는 현재 레일바이크를 실어 나르며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낙동강철교」의 아래쪽에는 「삼랑진교」가 있는데 밀양시 삼랑진읍과 김해시를 이어주는 4차선 도로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고, 제일 아래쪽에는 경부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낙동대교」 두 개가 상하행선으로 교차하고 있다.

여섯 개의 다리가 어우러진 삼랑진교 주변 낙동강은 일출과 낙조가 아름다워 사진작가들이 선호하는 ‘뷰 포인트’다.

삼랑진은 낙동강 종주 자전거 여행객들이 많이 쉬어가는 곳으로 강변 자전거길 주변에 펜션과 모텔들이 많이 있다. 자전거길도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하여 지금은 「삼랑진교」를 지나면 마을로 접어들지 않고 바로 강변 자전거길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

삼랑(三浪)은 세 갈래의 물길(낙동강, 밀양강, 바닷물의 역류)이 만나는 곳을 이르는 지명이다. 삼랑진은 예로부터 영남대로와 접속하는 수운의 요충지로 조선 후기 동안 낙동강에서 가장 큰 포구 중의 하나였는데, 1765년(영조41년)에는 삼랑창과 후조창이 설치되어 밀양, 현풍, 창녕, 영산, 김해, 양산 등 여섯 고을의 전세와 대동미를 수납, 운송하며 물자의 최대 집산지로 역할을 했다. 근대에 철도가 놓이면서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하여 영호남의 물류 이동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때 물류 이동의 요충지였던 삼랑진은 근대 산업 구조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읍내에 이렇다 할 산업이 없다. 우리나라 딸기 시배지이고 만어사와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인 김범우(토마스)의 묘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관광지로서도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숙소는 읍내 어귀에 있었다. 4일간의 숙소 중에 가장 깨끗한 편이라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일찍 도착한 덕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밀양은 돼지고국밥이 유명한데, 며칠 동안 국밥 타령을 하던 아이들도 낮에 수산리에서 소고기국밥을 먹은 탓에 더는 국밥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오늘은 삼겹살 파티를 하겠다고 하니 아이들도 쾌재를 불렀다. 힘들여 활동한 아이들에게는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큰 보상이다. 식사 후 주인 할머니에게 부탁드렸더니 내일 아침 식사도 해주겠다고 하신다.

오늘 평가 시간은 자전거 여행 전체의 총평을 할 생각이다. 오늘의 소감과 감정을 나눈 다음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자전거에 지친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였던 모양이었다. 한두 사람 칭찬하고 말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을 골고루 칭찬했다.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볼 수 없었던 친구의 모습을 칭찬하기도 하고 힘든 여정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친구의 모습을 칭찬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가장 무섭게 느꼈던 홍 선생님의 자상한 모습을 칭찬하기도 하고,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자전거도 잘 타시는 교장 선생님을 칭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통해 느낀 점을 문자 제법 어른스러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일도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도 했으며 2학기부터는 생활 태도를 바꿔야겠다는 말도 했다. 며칠 사이에 아이들이 부쩍 자란 것 같았다. 토론 말미에 홍 선생님께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모두 모아서 책을 내면 좋겠다며 2학기에 책 쓰기 모임으로 하자며 제안하셨다.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대화 하는 동안 두 시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다.

울숙도에 도착해 깜짝 놀란 아이들 - 자전거 여행 마지막 날

오늘은 울숙도까지 48km를 달리면 된다. 4일간 단련된 아이들이라 마지막 날 구간은 비교적 쉽게 달려 여덟 시 반에 출발하면 쉬엄쉬엄 가도 열두 시 전에는 도착할 것 같았다. 울숙도에는 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있기로 했다. 난생처음 어려운 과정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 낸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이 격려에 아이들은 엄청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했다. 학교로 돌아가 자전거를 모두 정비한 다음에 집으로 간다고도 했다. 홍 선생님이 깜짝 쇼를 기획한 것이었다.

울숙도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의 자전거길은 강변을 끼고 평지를 달린다. 홍 선생님은 아침부터 대열을 벗어나 드론을 띄우고 영상을 촬영했다. 아이들도 순조롭게 달렸다. 「가야진사」가 있는 휴게소에서는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 먹는 여유를 부렸다. 열 시쯤에 양산 황산공원에 도착했다. 뒤쳐졌던 형준이와 홍 선생님이 보이지 않아 양산낙동강교 밑에서 휴식을 취하며 기다렸다. 이제 곧 부산에 입성하게 되는데 길목인 이곳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형준이가 오지를 않았다. 잠시 후 홍 선생님이 오셔서 형준이 소식을 물으니 황산공원 근처까지는 같이 왔는데 입구에서 헤어졌다고 하셨다. 먼저 지나간 것은 아닌지 되물었지만, 부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곳 밖에 없다. 다시 한참을 기다렸지만 형준이가 오지 않았다. 형준이에게 전화하여 위치를 물으니 황산공원 내부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다. 날씨가 흐리다 보니 넓은 황산공원 내부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듯하였다.

홍 선생님이 가서 형준이를 찾아오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형준이가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길을 나섰다. 일정이 지체된 것이 미안했던지 형준이는 말도 없이 이를 악물고 달렸다. 우리는 길을 헤매고 있을 형준이를 생각하며 걱정했는데, 정작 본인은 미안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다.



▲ 길을 잃어 미안한 마음에 온 힘을 다해서 달리다 지친 형준

구포역을 지나면 삼락생태공원을 끼고 숲길이 이어진다.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길과 함께 있어 자전거를 조심해서 타야 하는 불편함은 있으나 더운 여름의 햇빛을 잊을 수 있는 그늘이 5km 이상 이어져 있어 힘든 아이들에게는 다소 위로가 되었다.

숲길이 끝나고 멀리 「낙동강 하구둑」이 보이자 아이들이 마지막 힘을 내 달려갔다. 뒤에서 보는 아이들이 지친 모습은 고사하고 이제 막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활기가 넘쳐 보였다.



▲ 멀리 「낙동강 하구둑」이 보이자 아이들이 마지막 힘을 내 달려갔다. 힘차게 페달을 밟는 성우의 뒷모습에서 활기가 느껴진다.

낙동강 하구둑은 낙동강의 하구를 가로막은 둑으로 1983년 9월에 착공하여 1987년 11월에 준공된 콘크리트 중력댐이다.

정부가 내세운 「낙동강 하구둑」 건설의 주목적은 염해 방지와 연간 6억 4,800만 톤에 이르는 용수 확보였다. 당시 낙동강 하구는 밀물 때 바닷물이 상류 약 21km 지점에 있는 물금 취수장까지 치고 올라가 부산 시민의 취수를 위협했고, 김해평야의 안정적 농업용수 취수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당시 중동 지역의 경기가 퇴조해 국내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낙동강 하구둑」 건설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었지만, 생태계의 보고였던 낙동강 하구와 을숙도의 생태계 파괴를 막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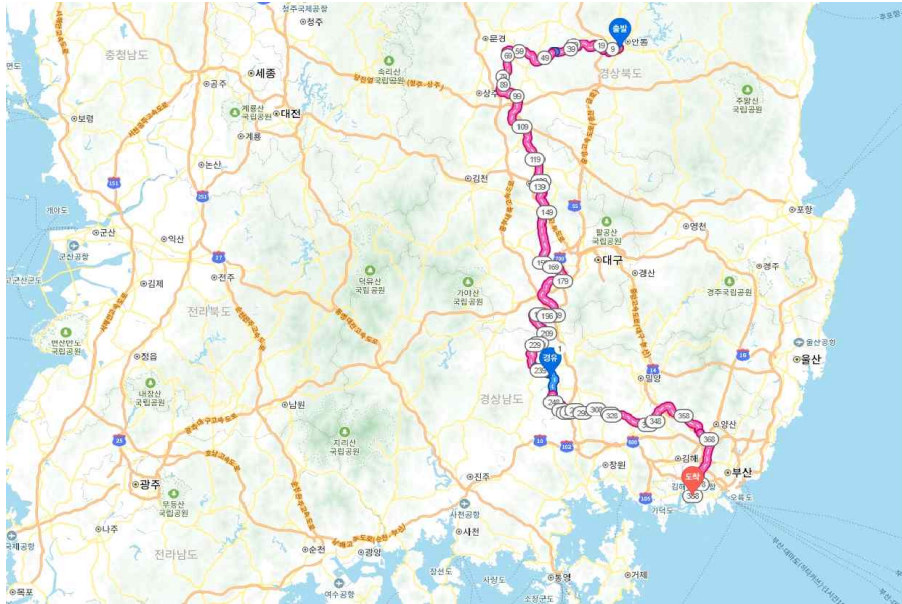
을숙도는 낙동강이 만든 삼각주로서 갈대와 수초가 무성하고 먹이가 풍부해, 한때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다. 1966년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었으나 1987년 낙동강하구둑이 완공되면서 섬 전체가 공원화되어 갈대밭과 습지가 많이 훼손되었고, 문화회관이 생기며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철새도 대폭 줄어들었다. 현재 뒤늦게 특별보존지역을 설정해 일부 지역에 사람의 출입을 막고 인공습지를 조성해 철새를 다시 불러오려고 하고 있지만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최대 철새 도래지 지위는 창원시 의창구의 주남저수지가 가져간 상황이다.

낙동강 하구에는 갯벌이 잘 발달하여 재첩과 갯지렁이가 풍부해 지역 어민들의 수입원이었는데, 하구둑이 건설된 후 낙동강이 싹고 온 각종 오염 물질이 침전되어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다. 앞으로 국토를 개발할 때는 환경과 경제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아이들은 한 시가 가까워져서 을숙도에 도착했다. 을숙도 입성은 아이들이 먼저 하게 앞자리를 양보했다.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린 학부모님들이 박수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를 태우고 갈 승합차를 몰고 오신 선생님 두 분도 보였다. 아이들도 생각지도 못한 부모님들의 등장에 놀라는 표정이었다. 어떤 어머니는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감추시기도 했다. 평일이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휴가를 얻어 달려오신 듯했다.

마지막으로 형준이가 도착할 때까지 소식이 없던 홍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6km 정도 남은 지점인데 자전거가 펑크가 나서 수리 중이라고 하셨다. 잠시 후 자전거 수리를 했으나 바퀴가 또다시 펑크가 났다며 연락이 와서 결국 차량을 보내 모셔 오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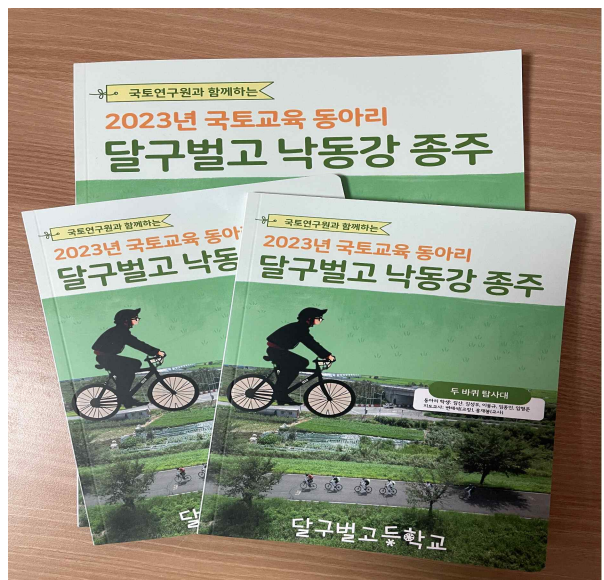
홍 선생님이 도착한 후 간단하게 마지막 소감 나누기를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부모님들과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의젓해 보였다.



5. 동아리 활동 결과물



▶동아리 프로그램 활동을 위해 구입한 낙동강 및 자전거 여행 관련 도서 코너 마련. 향후에도 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른 학생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낙동강 국토 탐사 보고서 발간
(주제: 국토종주 자전거길과 지방균형 발전 및 지속가능한 지방 역량 신장
-국토종주 낙동강자전거길을 중심으로-)